

# 유생들의 일기 통해 본 조선인들의 히로애락

## 역사책에 없는 조선사

이상호·이정철 지음

1616년 7월 17일(음력) 경상도 예안현(지금의 경북 안동시 예안면)에서 전염병이 발병했다. 전염병에 걸린 주민들은 철저히 고립됐다. 물론 약도 구할 수 없었고 특별한 치료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문제는 전염병 자체도 두렵지만, 주위로부터 배척당할 수 있다는 걱정이 더 무서웠다. 누군가로부터 터부시된다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당시 전염병에 걸린 정희생의 어머니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차라리 그 쪽이 병에 의해 죽는 것보다 나았다.

조선시대에도 전염병은 공포의 대상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구촌이 두려움에 휩싸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감염이 언제, 어디까지 확산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언급한 전염병에 감염된 조선시대 민초의 사례는, 오늘날 코로나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확진자가 늘면서 가짜 뉴스는 물론, 신상털기, 인신공격성 발언 등과 같은 부정적인 양상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전염병 사례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조선은 나라 운영에 관한 세세한 기록이 있을 만큼 기록의 나라였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이 대표적인데, 국가 차원의 기록뿐 아니라 유생들의 일기도 귀한 자료였다. 유생들의 일기를 통해 본 조선인들의 히로애락

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여졌다. 경상도 유학자 20인의 일기로 본 당대의 내밀한 풍경을 기록한 '역사책에 없는 조선사'가 바로 그것. 이상호 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원과 이정철 박사가 펴냈으며 조선 사람들의 '육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특히 책은 한국국학진흥원에 보존된 3000여 점의 일기류가 원천 자료가 됐다.

당대의 국가시스템은 오늘에 참고할 만한 부분도 적지 않다. '피함'이라는 제도가 그렇다. 탄핵받은 관리가 조정에 출사하지 않고 대기하는 것으로, 자신에게 혐의의 없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차원이었다. 물론 이를 통해 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함이었다.

무거운 처벌을 내릴 때는 무엇보다 객관성 담보가 중요했다. 이 때는 반드시 심판관 두 명이 추궁하는 '동추'를 해야 했다.

상피제는 과거시험에서 엄격히 적용됐다. 작금에 문제가 됐던 부정시험 사례와 연계해보면 수긍이 간다. 한마디로 '권력은 공평해야 한다'는 명제를 시스템에 적



그림 감상을 하고 있는 유생들의 모습을 담은 단원 김홍도의 풍속화. <푸른역사 제공>

용시킨 명징한 사례다. "과거시험에서 아버지가 시험관이 되면 아들은 그곳에서 시험을 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시험 자체를 볼 수 없도록 했던 것이다. 관직에서도 마찬가지로. 친인척이 상사로 임명되면, 누군가는 그 자리를 피해 주어야 했다."

일상과 연관된 지혜들도 만날 수 있다. 시집간 딸이 친정을 찾아 한 달여간 머물 수 있었던 '근전', 상환이 안 돼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안사돈들이 동반해 중간에서 만나 회포를 풀었던 '반보기' 등은 선인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오늘의 직장생활과 연계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조선시대 관리들은 하루 12시간 근무했으며 연 70일을 쉬었다는 내용도 있다. "여름에는 묘시, 즉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에 출근했다. 그리고 퇴근은 유시, 즉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였다." 오늘날의 주 52시간 근무제에 비하면 노동강도가 만만치 않다.

이처럼 책은 어느 역사책에서는 볼 수 없는 이야기의 보고(寶庫)다. 공식 문헌으로는 볼 수 없는 사람살이의 기록을 넘어 당대의 지혜로 다가온다. <푸른역사·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무지개 일곱 남매, 자연에 물들다- 초등학교 교사가 자존감이 낮고 위축돼 있는 아이들과 함께 숲 체험을 하고 활동한 일지를 책으로 엮었다. 담임교사와 보건교사의 추천으로 일곱 명의 아이들을 선정 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격주 토요일마다 17회차 숲 체험 프로그램 진행했다. 숲 체험 활동을 하는 아이들의 다양한 모습을 찍은 사진도 곁들여 당시의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고 생생하게 전달한다. <지성사·2만8000원>

▲사람아, 사람아- 아흔 평생 1000편 가까이 시를 써온 김남조 시인이 펴낸 19번째 시집이다. 시인 본인이 '나의 끝 시집'이라 일컬은 책에는 사람과 사랑에 관한 52편의 시가 수록되었다. 그가 '시인'으로 살아온 71년의 세월에는 선불리 넘겨줄 수 없는 수많은 사연들이 담겨 있다. 시인은 "열아홉 권의 시집을 내고 다른 것도 썼습니다만 많이 쓴 건 사랑이었"다고 고백한다.

▲문학수첩-1만2000원

▲이지미의 이지 사이언스01. 지구-이 지구의 자연환경과 이곳에 적응해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빗방울은 떨어지면서 아랫부분에 공기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흔히 생각하듯 뾰족한 모양이 아니라는 사실처럼 반전의 재미가 있는 지식을 선사한다. 사하라 사막에서 아마존으로 옮겨가는 거대한 황사 속에는 생명체 유전자 구성에 꼭 필요한 인이 들어 있어 아마존에 뿌려

▲천년을 넘어온 힘-스티브 잡스는 "소크라테스와 대화할 수 있다면 애플의 전 재산을 넘겨줄 수 있다"고 했다. 그만큼 고전(古典) 속에는 삶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책은 논어, 맹자, 한비자 등 많은 경전속에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선인들의 100가지 지혜를 소개한다. 사자성어 한자 풀이 및 유래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그 문구가 의미하는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여러가지 관련된 내용을 수록해 그들의 삶과 지혜를 배우고, 깨우침이 있기를 기대한다. <노드미디어·1만7000원>



지는 비료의 역할을 한다는 것 등 지구의 생태계를 조율하는 경이로운 이야기가 펼쳐진다. <창비·1만2000원>

▲문학수첩-1만2000원

# 지구 절반을 뒤덮는 쓰레기... 버린만큼 돌아온다

## 쓰레기책

이동학 지음

청년 정치인 이동학은 지난 2년간 61개국 157도시로 세계여행을 떠났다.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이들이 UN 총장의 마음으로 지구를 돌며,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책을 모색해보기 바라는 마음에 지구촌장에 임명한다"는 임명장부터 받은 '임명장'이 큰 응원이었다.

이 씨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배우려 한 것은 애초에 세 가지였다. 고령화로 인한 갈등, 도시에서의 갈등, 이민자와의 갈등으로 여행이 끝나면 관련 책을 집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여행 도중 전 세계가 하루 빨리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공멸하고 말 문제를 발견하고 관련 글을 먼저 쓰기로 했다. 쓰레기다.



'쓰레기책-왜 지구의 절반은 쓰레기로 뒤덮이는가'는 우리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내가 끊임없이 만들어 내는 쓰레기 문제를 현장감 있는 글과 사진으로 풀어낸 책이다. 무엇보다 책은 이론이나 통계에 기반한 게 아니라, 발로 뚫은 생생한 현장감이 살아 있고 쉽게 씌어져 쓰레기 문제를 바로 우리의 문제로 느끼게 해준다.

7장으로 구성된 책에서 주목하는 건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다.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따르면 2015년까지 생산된 플라스틱 83억 t, 쓰레기는 63억 t에 달하며 이중 49억 t이 땅에 매립되거나 지구 구석구석에 쌓여있다. 해양쓰레기들이 물려드는 마닐라 바세코 마을이나 몽골의 스

레기산, 프랑스 면적의 3배에 달하는 플라스틱 밀집촌 '대평양 쓰레기섬' 등 지구 곳곳은 플라스틱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2018년 전 세계 쓰레기의 56%를 수입하던 중국이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면서 미국과 유럽 각국은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중이다.

브라질 쿠리치바는 재활용 쓰레기 4kg 당 1kg 농산물을 교환해 주는 '녹색교환 프로그램'과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분류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에코시민 프로젝트'를 통해 저소득층과 노숙자 등 도시 빈민의 삶 향상과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있어 세계의 관심이 높다. 또 구매할 물건을 담아주는 비닐봉지 뿐 아니라 상품 포장지가 아예 없는 베를린의 작은 가게 '오리지널 유페르파트'처럼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행동에 옮기는 세계 각국의 사례도 인상적이다. 그밖에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참가팀 중 9

개국 유니폼이 대안에서 수거된 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들어진 정도로 자원순환 선진국으로 꼽히는 대안 사례도 눈길을 끈다.

음식물 쓰레기는 또 다른 골칫거리다. 친환경 하이테크 농업회사 산동 쿼오빈 농업과학기술회사가 운영중인 중국산동성 지난시 음식물 처리장은 바퀴벌레 40억 마리에게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바퀴벌레들은 하루 200만 t의 음식물 쓰레기를 먹어치운다. 또 스웨덴 기업 카르마는 레스토랑들이 남은 음식을 반 가격에 내놓고 무료요를 통해 연결하는 비즈니스를 진행중이다.

저자는 책 말미에 어른들을 환경보안관으로 활용하는 프로젝트, 교육과 겸해 재활용 쓰레기를 학교에 버리도록 하는 것 등 '현실화'와는 별개로 몇가지 아이디어를 언급하기도 하는데 이는 "상상하고 시도하고 부셔지고 다시 일어서는 반복의 과정을 통해 꼭 풀어야 할 문제"라는 의식을 공유하기 위함이다.

<odos·1만69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어린이·청소년 책

▲파세와 함께한 10일-전 세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난민 문제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그렸다. 주인공 '열이'는 부모님의 제안으로 미얀마에서 온 난민 소년 '파세'와 10일 동안 같이 살게 된다. 난민에 대해 관심조차 없던 열이는 파세와 함께 지내면서 파세가 자신과 다를 것 없이 똑같은 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를 통해 세상은 나 혼자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창어람주니어·1만3000원>

▲이 선이 필요할까?-사람과 사람을 나누고, 가려며 구분 짓는 선에 대한 이야기다. 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작은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며 일상의 모든 편견과 슬픔없는 기준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세상에 일반적인 가족의 형태란 없으며 정치적 이념으로 사람을 나눌 수 없고, 부의 기준으로 사람들의 가치를 매길 수 없다고 말한다. 또 정말 필요한 선은 우리를 나누는 선이 아니라, 우리를 잇는 선이라고 설명한다. <노란상상·1만4000원>

▲수상한 이야기 공장-어린이 스스로 놀이처럼 재미있게 스토리텔링의 기본 원리를 익히고 실전을 연습할 수 있는 책이다.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공장'을 배경으로 어떤 것이든 재료만 넣으면 자동으로 이야기가 완성되는 쉬운 작동 원리를 강조한다. 59개의 도전 과제가 1단계부터 4단계, 마지막 최종 단계까지 난이도 별로 나누어 담겨있다. <씨드북·1만2000원>



## ESS시공전문기업

#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